

2023. 10. 12.(목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1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문화본부 문화정책과

서울도서관장

오지은

2133-0200

도서관정책과장

김지혜

2133-022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5쪽

관련홈페이지
(서울도서관)

<https://lib.seoul.go.kr/>

도심 속 자연에서 즐기는 독서문화...서울야외도서관 청계천 '책읽는 맑은냇가' 특별운영

- 서울도서관, 10.13.(금)~10.15.(일) 3일간 청계천에서 '책읽는 맑은냇가' 특별 운영
- 조약돌 방석 위 물소리·음악 소리... 도심 속 자연에서 여유 즐기며 독서하는 즐거움 제공
- 전문 작가가 찍어주는 맑은 냇가에서 책 읽는 내 모습... '독서 인생샷' 프로그램 운영
- 하반기 '책읽는 서울광장'·'광화문 책마당', 로컬푸드·마음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

□ 지난 4월 개장 이후 6개월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찾은 '서울야외도서관'이 청계천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을 맞이한다. 서울도서관은 10.13.(금)~10.15.(일) 3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'책읽는 맑은냇가'를 특별 운영한다.

○ '책읽는 맑은냇가'는 시민들이 청명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청계광장~모전교~광통교 구간을 독서 구역(리딩존)으로 구성하고, 독서를 위한 각종 편의용품과 책바구니를 비치하여 운영된다.

□ 바쁜 일상 속, 여유가 함께하는 색다른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'서울야외도서관'은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상징하는 도시의 대표 브랜드로

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으며, 올해 ‘Green Library Award’ 국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.

#가을에 광화문을 꼭 가봐야 할 이유! 경복궁과 북악산을 배경으로 풍경이 아예 밤낮없이 예술이라고...
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 책 보러 가야할 듯
#서울 하늘에 지는 노을과 야경을 두고 낭만적인 밤독서를 즐길 수 있는
#책 읽기 딱 좋은 날씨네! 광화문 책마당
#누워서 강연 듣기는 처음... 실내 강의실에서만 듣다가 이렇게도 들으니 재밌네
#야외 잔디밭에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누워서 읽고 싶은 책 읽었다가 눈감고 쉬었다가
<책읽는 서울광장, 광화문 책마당 인스타그램 피드 중>

- ‘책읽는 맑은넷가’는 도심 곳곳을 열린 독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 도서관의 야외도서관 사업 일환이다. 서울의 대표 명소인 청계천에 조성된 조약돌 모양의 알록달록한 방석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와 잔잔한 음악을 배경 삼아 도심 속 자연에서 여유를 즐기며 독서하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.

- 이번 행사에는 도심 속 색다른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해 멋진 사진으로 남기는 ‘독서 인생샷’이 함께 진행된다. 책 읽는 나의 모습에서 멋과 자신감을 느끼고 독서에 대해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정을 남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서울도서관 누리집에서 6일(금)부터 사전 신청받고 있다.
 - ‘독서 인생샷’은 선착순으로 모집한 54명(팀)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진은 신청자의 전자 우편으로 발송되고, 향후 서울야외도서관 홍보 사진으로 활용될 수 있다.

- 행사 기간에는 서울광장의 ‘책읽는 서울광장’, 광화문광장의 ‘광화문 책마당’ 모두 다른 행사 개최로 인해 쉬어간다. 더불어 ‘서울야외도서관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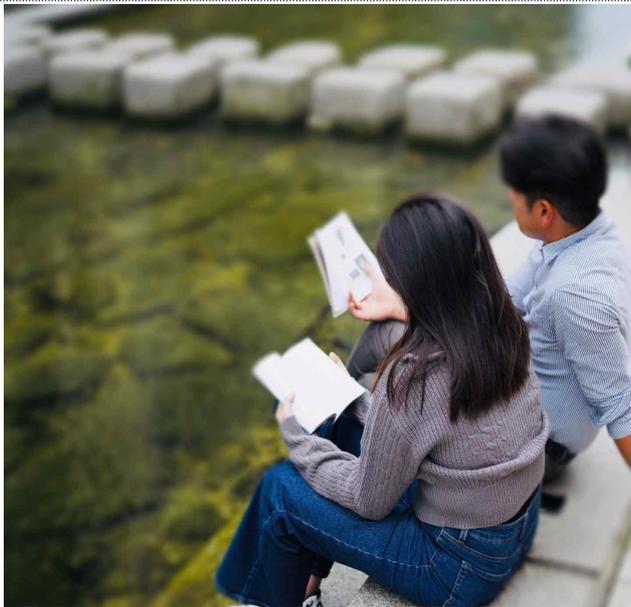
은 하반기 내내 시민들의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일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- ‘책읽는 서울광장’과 ‘광화문 책마당’에서 <로컬푸드를 담은 서울야외도서관>을 운영한다. 청년 농부, 귀촌자 등 농가와 연계하여 책을 읽으며 꼬마 사과, 레드 키위 등 다양한 농특산물과 꽃, 식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작은 시장을 연다.
- ‘책읽는 서울광장’에서는 ‘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5가지 방법’을 주제로 매주 목요일 ‘웃음’, ‘좋은 휴식’, ‘꿈의 재발견’, ‘나다움 찾기’, ‘어른으로 살기’에 대해 ▲심리 상담사 박상미 ▲정신과 의사 문요한 등 다섯 명의 작가의 북토크를 진행한다. 반복된 일상 속 무기력함과 지겨움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, 일상 속 활력을 불어넣어 줄 예정이다.

□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“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 이어 서울의 대표 명소인 청계천으로 야외도서관이 나들이를 나가 특별한 독서경험을 제공하게 되었다”며 “도심 한가운데서 자연과 함께 누리는 건강하고 특별한 독서 경험으로 시민 모두가 책을 더 가까이 하고 감수성을 채우는 풍성한 가을 보내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붙임 : 관련 사진(책읽는 맑은 냇가, 서울야외도서관)

붙임. 관련사진(책읽는 맑은 냇가)



관련사진(서울야외도서관)



로컬푸드를 품은 서울야외도서관(광화문 책마당)



로컬푸드를 품은 서울야외도서관(책읽는 서울광장)



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5가지
방법 프로그램